

《현은산일기》와 조선식한문

리진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고전학부문에서는 중요민족고전들에 대한 번역편찬사업을 빨리 끝내어 우리 인민의 값높은 향유물로, 나라의 재보로 되게 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민족고전들에 대한 번역편찬사업을 빨리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민족고전들에 쓰인 한문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민족고전들은 중국사람들이 쓰고있는 글자와 다른 리두가 섞인 조선식의 독특한 한문으로 씌여져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67권 513페이지)

우리 나라 민족고전들은 리두가 섞인 조선식의 독특한 한문으로 씌여져있다.

리두(吏讀)란 한자의 뜻과 음을 빌어 우리 말을 기록하는 독특한 서사방식이다. 리두는 한자의 뜻과 음을 가지고 우리 말을 될수록 그대로 기록하는데 쓰인 글말로서 한문과는 구별되는 서사체제이다.

우리 나라 민족고전들에 쓰인 조선식의 독특한 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데서 《현은산일기》의 자료들은 학술적가치가 크다.

《현은산일기》는 민족의 역사를 귀중히 여기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랜 세월 황해남도 연안땅의 어느 한 농촌집에 묻혀있던것이 발굴수집되어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과학연구사업에도 리용될수 있게 되었다.

《현은산일기》(玄殷山日記)는 우리 나라 옛날책들가운데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16세기 후반기의 개인일기책이다.

우리 나라 중세에 씌여진 일기(日記)에는 크게 두가지 류형이 있었다.

그 하나는 봉건사회에서 봉건왕조나 봉건관료기구들의 역사를 일기체형식으로 편찬한 책들로서 여기에는 조선봉건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이 속한다.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사생활을 위주로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으로서 여기에는 리순신의 《란중일기》, 오희문의 《쇄미록》, 류희춘의 《미암일기》, 홍대용의 《제방일기》, 김려의 《감담일기》, 김옥균의 《갑신월록략초》, 현적복의 《현은산일기》 등이 속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해당 시기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생활풍습 등을 보여주는 생동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반영되어있다.

《현은산일기》는 저자가 수십년동안 체험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정에 있는 다종다양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것이다.

특히 《현은산일기》에는 조선식의 독특한 한문의 어휘문법적특징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자료들도 수록되어있다.

조선식한문은 본래의 한문과는 구별되는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한문이 오래동안 써여오는 과정에 이루어진것이며 그것이 곧 리두가 섞인 한문이다.

조선식한문의 중요한 특징은 어음과 어휘 그리고 어순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조선식한문은 우리 민족의 글말이 아닐뿐아니라 고유한 한문도 아닌 중세 우리 나라에서만 쓰이던 한문이다.

조선식한문이 나오게 된것은 글말로서의 한문과 입말로서의 우리 말과의 심한 불일치로부터 될수 있는대로 글말을 입말에 접근시키려는데서 온것이다.

《현은산일기》에는 바로 이러한 조선식한문이 많이 쓰이고있는것이 주요특징으로 되고 있다.

《현은산일기》에 반영된 조선식한문으로는 첫째로, 우리 나라에서 만들었거나 이미 있던 한자의 뜻이나 음을 변경시켜 쓴 글자들을 들수 있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들을 볼수 있다.

《又見平安監司書狀定州地今五月十六日潮水漲溢畚千餘石落只盡爲沈損肅川地同日潮水亦漲畚五十石落只田二十餘日耕庫盡爲沈損博川地五月十二日海溢畚五百餘石落只沈沒民生絕無蘇復之望極爲可慮》

《또 평안감사의 장계를 보니 정주땅에서 금년 5월 16일에 밀물이 밀려들어와 논 1천여섬지기가 다 물에 잠겨 못쓰게 되었고 숙천땅에서도 같은 날 밀물이 범람하여 논 50섬지기와 밭 스무날같이 되는 곳들이 다 물에 잠겨 못쓰게 되었으며 박천땅에서는 5월 20일에 해일이 들이닥쳐 논 5백여섬지기가 침몰되었다고 한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으니 극히 근심스러운 일이다.》(《현은산일기》 권4. 31장. 1589년 7월 2일)

우의 문장에서 《畚》(음은 답, 뜻은 논)자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글자이다. 이러한 실례는 《架橋》(권5. 22장)의 《架》자라든가 《亶無赤》(권5. 45장)의 《亶》자 등을 들수 있다.

여기서 《畚》은 뜻과 음을 다 가지고있는 글자이며 《架》, 《亶》은 뜻은 없고 음만 있는 글자로서 주로 사람이름, 고장이름에 널리 쓰이였다.

또한 음이나 뜻을 변경시켜 쓴 글자들을 볼수 있다.

《出于官倉捧上太還上移于上》

《관가창고에 나가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인 환자곡 콩을 옮겨서 올려다놓았다.》

(《현은산일기》 권4. 112장. 1590년 11월 5일)

우의 문장에서 《太》(음은 태, 뜻은 콩)는 한자는 같지만 뜻을 변경시켜서 쓴 글자이다.

《山尺九人留置官中供饋其弊不費兩營所納大虎一口捉來是則可喜而又一口時未尋蹤而留饋此輩》

《산자이 9명을 관가에 머물러두고 음식을 보장하여주는데 그 폐단을 헤아릴수 없다. 량영에 바칠 큰 범 한마리를 잡아온것은 기쁜 일이지만 또 다른 한마리는 아직 발자취를 찾지 못하여 그들을 류숙시키며 먹여주고있다.》(《현은산일기》 권4. 115장. 1590년 12월 2일)

우의 문장에서 《尺(뜻은 사람, 음은 척)》은 한자는 같지만 뜻과 음을 변경시켜 쓴 글자이다. 여기서 《山尺(산척)》이라는 말은 당시에 이른바 《화외지민》(국가의 통제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도 하고 《화적》이라고도 불리우던 사람들로써 산속에서 살며 포수 노릇을 하거나 약초캐기를 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 말로는 《산자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깊은 산속에서 살던 천한 신분의 사람들로써 봉건통치배들로부터 심한 신분적 천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현은산일기》에 쓰인 한자들에는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 음이나 뜻을 변경시켜 쓴 글자 등이 있다.

둘째로, 고유한 우리 말을 한자의 뜻과 음을 빌어서 표기한 어휘를 들 수 있다.

《현은산일기》에는 고유한 우리 말을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어휘, 한자의 음과 뜻으로 표기한 어휘, 한자의 뜻으로 표기한 어휘들이 들어있다.

우선 고유한 우리 말을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어휘를 볼 수 있다.

《賊人林巨叱正起自山谷間橫行一道殺掠無數 … 命南致勤討捕道內騷動》

《도적 림격정이 산골에서 일어나 온 도를 횡행하며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데 … 남치근에게 지시하여 붙잡게 하니 도내에 소동이 일어났다.》(《현은산일기》 권1. 96장)

《初十日乃家母生辰也令阿只行祭於祠堂某則閉門保久病之中眼疾並熾不能看書》

《10일, 오늘은 모친의 생일이다. 아기들더러 사당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나는 문을 닫아걸고 몸조리를 하였다. 오랜 병환속에 눈병까지 성하여 글을 볼 수 없다.》(《현은산일기》 권6. 25장)

《崔致遠及查頓鄭別監輩佩酒來》

《최치원과 사돈 정별감 등이 술을 가지고 왔다.》(《현은산일기》 권5. 25장)

《某曾爲永崇殿直也先問殿之安否則亦爲灰燼而只有餘基云》

《나는 한때 영송전 지기로 있던 일이 있었다. 그래서 먼저 영송전의 안부를 물어보니 역시 불에 다 타버리고 그 자리만 남았을뿐이라고 한다.》(《현은산일기》 권 5. 12장)

우의 레문들에서 《林巨叱正》은 우리 말로 《림격정》이라는 사람이름을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阿只》와 《查頓》은 《아기, 아이》라는 말과 《사돈》이라는 말을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며 《直》은 《지기》(《문지기》 등에서의 《지기》)라는 말을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일기에는 이러한 어휘가 매우 많이 쓰여졌다.

제5권에서만 찾아보더라도 《點心》(점심)(권5. 17장), 《三寸》(삼촌)(권5. 20장), 《同生》(동생)(권5. 20장), 《奇別》(기별)(권5. 23장), 《上典》(상전)(권5. 22장), 《胎奇》(태기)(권5. 24장), 《磨鍊》(마련)(권5. 36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고유한 우리 말을 한자의 뜻과 음으로 표기한 어휘들을 볼 수 있다.

《十五日令長阿只行酌獻禮於祠堂某則爲病所困日晚乃起》

《15일, 큰 아기더러 사당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는 나는 병에 시달리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일어났다.》(《현은산일기》 권6. 22장)

《潮水出入海汀有大岩名曰加莫岩跋出移轉云云》

《밀물이 밀려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바다가슌에 있는 까막바위라고 부르는 큰 바위가 뿔히여 굴러갔다고 한다.》(《현은산일기》 권5. 15장)

우의 레문들에서 《長阿只》는 《큰 아기》라는 말인데 《長》은 뜻으로, 《阿只》는 음으로 표기한 것이며 《加莫岩》은 《까막바위》라는 바위이름인데 《加莫》은 음으로, 《岩》은 뜻으로 표기한 것이다.

또한 우리 말을 한자의 뜻으로 표기한 어휘들을 볼 수 있다.

《家奴小斤金自去年二十四日得病迄未差復深恐傳染一家》

《집종 작은쇠가 지난달 24일부터 병에 걸렸는데 아직까지 차도가 없으니 온 집안이 다 병에 전염되지 않겠는지 몹시 걱정된다.》(《현은산일기》 권5. 108장)

《肅川地同日潮水亦漲畚五十石落只田二十餘日耕庫盡爲沈損》

《숙천땅에서도 같은 날 밀물이 범람하여 논 50섬지기, 밭 스무날같이 되는 곳들이 물에 잠겨 못쓰게 되었다.》(《현은산일기》 권4. 31장)

우의 레문들에서 《小斤金》은 《작은쇠》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우리 말을 한자의 뜻으로 표기한 것이며 《石落只》와 《日耕》은 각각 지난날 경지면적의 단위들이었던 《섬지기》(논)와 《날같이》(밭)를 한자의 뜻을 빌어 표기한 것이다.

셋째로, 우리 나라에서만 쓴 한자표기어휘들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만 쓴 한자표기어휘란 일반한문에는 없는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쓴 어휘들을 말한다.

《현은산일기》에는 이러한 한자표기어휘들이 넓은 범위에서 많이 쓰여있다.

그러한 어휘들로서는 《右承旨》(우승지), 《議政府》(의정부), 《吏曹參議》(리조참의), 《正郎》(정랑), 《直長》(직장), 《奉事》(봉사), 《主簿》(주부) 등과 같은 벼슬이름들도 있고 《薦望》(천망: 관원을 추천하는것), 《京主人》(경주인), 《房子》(방자)와 같은 직무와 관련된 이름들을 비롯하여 《反庫》(반고: 창고의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어 실사하는것), 《解由》(해유: 재산인계문건), 《踏驗》(답험: 농사형편에 대한 현지조사), 《奉足》(봉족: 군사로 동원된 사람의 뒤받침을 하는 사람), 《落點》(락점: 비준하는 점을 찍음)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쓰인 어휘들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立》, 《介》, 《同》, 《口》와 같은 분량의 단위를 표시하는 단어들구체적으로 세분되어 쓰였으며 《催促》(재촉), 《假家》(가계), 《山行》(사냥), 《塗褻》(도배), 《磨鍊》(마련: 준비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 등과 같이 우리 말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말 어휘체계속에 포함된 생활적인 어휘들이 많이 쓰인것이다.

넷째로, 우리 말 어순을 따른 한문문장과 우리 말투가 들어있는 한문문장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우리 말 어순을 따른 한문문장들을 볼 수 있다.

어순이란 문장에서 문장성분들의 배열순서이다. 이러한 어순은 언어에 따라 다 다르듯이 한문의 어순과 우리 말의 어순도 다르다.

《현은산일기》에는 한문식어순이 아니라 우리 말의 어순에 의하여 꾸며진 문장들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

실례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들수 있다.

《去十八日朝飯咀嚼時左邊第二大齒素爲動搖而忽然墮落吐飯漱水血色兼出矣噫十餘年間三大齒已落餘存者亦爲動搖此生之不久從可占也》

《지난 18일 아침밥을 씹어먹을 때 왼쪽편의 두번째 큰 이발이 원래부터 흔들거리었는데 갑자기 떨어졌다. 또한 밥과 입가심한 물에 피색이 섞어나왔다. 아, 10년 남짓한 기간에 석대의 큰 이발이 이미 빠졌고 남아있는것들도 흔들거리니 이젠 더 오래 살것 같지 못하다.》(《현은산일기》 권5. 45장)

우의 문장에서 《朝飯》은 《아침밥》을 의미하고 《咀嚼》은 《씹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말 어순(보어-술어)에 따라 섞여졌으며 《三大齒已落餘存者亦爲動搖》도 《석대의 큰 이발이 이미 빠진데다 남아있는것들도 흔들거린다.》라는 뜻인데 전형적인 우리 말 어순으로 꾸며졌다.

또한 우리 말투가 들어있는 한문문장들을 볼수 있다.

《현은산일기》는 중세 우리 나라의 사회제도와 풍습 등을 반영한 조선말을 조선사람이 한문으로 적은것으로서 여기에는 우리 말투가 여러모로 반영되게 되었다.

단편적인 실례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들수 있다.

《納雉者二十餘人外各各雉一首式納官事》

《땡을 바친자 20여명을 제외하고 각각 땡 한마리씩 관가에 바칠것》(《현은산일기》 권4. 57장)

우의 문장에서 《式》은 우리 말에서 《몇명씩》, 《몇개씩》하는 《씩》을 나타낸 말투이며 《外》는 우리 말에서 《누구누구외에》, 《무엇무엇외에》하는 《제외하고》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투이다.

《현은산일기》에 쓰인 조선식한문에는 첫째로,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쓴 한자, 둘째로, 고유한 우리 말을 한자의 뜻과 음을 빌어 기록한 어휘, 셋째로, 우리 나라에서만 쓴 한자표기 어휘, 넷째로, 우리 말 어순을 따르거나 우리 말 말투가 들어있는 문장 등이 들어있다.

우리는 조선식의 독특한 한문의 어휘문법적특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민족고전번역편찬사업을 다그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을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현은산, 리두